

# 낭만 가득 '강진만 갈대축제' 개최

### 오는 26일부터 9일 간 생태공원 일대서 송가인·홍자 등 미스트롯 5인방 축하공연



강진 가을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제4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강진만의 갈대와 바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주제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9일간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강진군향토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7개 분야 41개 단위행사를 마련해 전국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는 개막 축하 공연을 갖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화제의 가수들이 함께하는 열정의 무대는 축제 시작부터 재미와 즐거움을 한층 높여주리라 기대된다. 31일 오후 4시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시월의 마지막 밤' 낭만콘서트도 개최된다. 해바라기, 구장모, 남궁옥분, 소리새 등 7080 가수들의 콘서트는 강진만 갈대숲과 어우러져 가을 감성을 일깨우는 힐링의 시간으로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두 번째로 갈대를 이용한 놀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마차로 갈대 한바퀴, 갈대 페이스 페인팅, 갈대밭 플래시몹, 갈대밭 버스킹, 내가 갈대 다투는 강진만 갈대숲을 배경으로 가족단위 여행객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마련하고 있다. 세 번째로 청춘과 낭만이 함께하는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복고 스타일의 교복을 입고 갈대밭을 걷는 '엄마의 확장시절'을 비롯해 문방구, 만화방, 다방 등 80년대 추억의 장소를 세트장으로

만들어 포토존으로 활용하는 '청춘사관' , 오락실 분위기를 조성해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과 재미를 느끼는 체험인 '추억의 오락실' 등을 운영한다. 축제기간 중 SNS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여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년층 관광객의 참여를 위해 전국 청소년 댄스대회, 귀·감(귀엽고 깜찍한) 동물농장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축제장의 활력을 높인다.

이 밖에도 '아침아재' 청춘 콘서트, 야간 레이저쇼 등 기존의 인기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한 신 콘텐츠들을 엄선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한다. 최치현 문화예술과장은 "갈대숲의 가을 풍경과 이색 체험, 다양한 볼거리가 어우러진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가을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이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여행지로서 강진의 매력과 장점을 적극 알릴 계획으로 관광객들로 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완도군, 35억 투입 문화시설 확충

군민회관·복합문화센터·문화예술의 전당 등



서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완도문화예술의 전당 유희공간에 총 사업비 12억5,000만원(국비 5억)을 투입해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2개소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21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1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별도로 단일 시설로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의 유희 공간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에도 선정돼 추가로 5억을 확보하여 국비 총 15억1200만 원을 확보했다.

군은 앞으로 의회의 협조를 얻어 관내의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완도군민회관에 총 사업비 22억7200만 원(국비 10억1200만 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

완도=김광수 기자

## 장성군, '필암서원 세계유산

### 등재 기념식' 23일 갖는다

장성군이 오는 23일 오후 2시 필암서원에서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념비 제막식과 기념식수, 필암서원 등재에 기여해온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김인수 도유사, 김성수 부도유사, 김진산 별유사,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에 대한 유공자 시상도 잇따라 진행된다.

이어서 유두석 장성군수와 이계호 국회의원, 차상현 군의회의장 등 1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증서 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한다.

행사 전후에는 영천농악과 가야금병창, 빛고을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앞선 7월 6일 유네스코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장성 필암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 9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고 발표했다. 장성군은 9월 5일 개최된 한국의 서원 등재 기념식을 통해 공

식적으로 인증서를 수령했다.

필암서원의 창건은 선조 23년인 15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선생을 배향하기 위해 장성읍 기산리에 세워졌다. 정유재란으로 소실됐으나 1624년 다시 복구했으며, 잦은 수해 등을 이유로 1672년에 지금 위치로 옮겨졌다. 호남의 대표 사액서원(국가공인 서원)으로,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1868년)을 내렸을 때에도 보존됐다. 강학공간인 청절당, 사당인 우동사, 경장각에는 하서선생문집목판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유생들의 휴식 공간인 화연루 현관은 우암 송시열이 썼다.

유두석 군수는 "필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로 '학문은 장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문벌여장성(文不長城)의 전통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며 뜻깊은 행사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 장흥군, 산림문화박람회서 '장흥표고' 인기몰이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에서 '장흥 표고버섯 홍보관'이 관람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장흥표고버섯홍보관은 산림문화박람회 통합홍보관 내에 자리하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원목재배 표고버섯을 이용한 향토음식, 가공제품, 재배 기자재 등을 전시하고, 표고버섯 토끼어리 포토존을 설치하여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다.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표고차, 표고전, 표고잡채, 표고떡,

표고식혜 등 표고음식 시식코너를 운영해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은 1992년 산림청으로부터 표고버섯 주산지 지정돼 건표고 기준 전국 물량의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장흥 표고버섯은 소고기, 키

조개와 조화를 이루는 '장흥삼합' 재료로도 활용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반승언 박사는 "버섯홍보관 운영이 장흥 표고버섯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장흥군 표고버섯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흥=김광수 기자

## 함평군, 국향대전 대비 위생 교육 실시



에서 친절서비스 및 식품안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국향대전의 성공과 안전한 먹거리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시를 앞두고 다가온 가운데, 함평군은 15일 함평전지 한우프라자 회의실

제공 등을 다짐했다. 남도의식문화개발원 이은상 원장이 강사로 나선 본 교육에서는

먹거리 관광객 유치 전략과 외식업소 친절·경영기법 등을 소개했다.

특히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함평 생(生)비빔밥 5점 반상' 특화전략과 관련해 업소별 콘셉트와 홍보마케팅 등 경영전략을 전달했다.

또 교육 이후에는 손님용 일회용 앞치마를 축제장 주변 210개 업소에 배부하고 털어먹기, 재탕금지, 개별찬기 사용 등 주방·음식문화 개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군은 앞으로 10여 일간 지역 음식점 33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음식점 3대 청결운동 등 위생 컨설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연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대한 호감은 축제 내용보다 음식 관련 위생과 각종 친절한 서비스에 더욱 좌우된다"며, "또 한번 찾고 싶은 국향대전과 함평을 위해 식품위생법령 준수 등 철저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평=김광수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